



이음, 제주

사람과 사람이 만나 관계를 잇다

TRACK.18



★★★ 스페셜-테마 ★★★

공간과 사람, 그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작은 가게 이야기

• 대동선구사 • 동양장 미용실 • 아하맛춤 • 충옥당 표구사 •

“

한 시대였던 그 가게, 더 사랑할 걸 그랬다

흘러간 시간 속 추억이 되어 버린 동네 곳곳의 작은 가게들.
지금 우리 곁의 가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아 있을까.

글 진선희(한라일보 기자)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를 졸업했고 제주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한라일보 기자로 입사해 주로 문화예술 분야 취재를 맡아왔다.
현재 한라일보 교육문화체육부장으로 있다.
2017년 민속원 출판사에서 '제주바탕' 표류의 기억을 펴냈다.

저녁 무렵, 동네 골목길을 걷다가 불 꺼진 가게를 봤다. 차를 몰고 출퇴근하는 길엔 미처 눈에 들어오지 않던 곳이었다. 00슈퍼, 세월의 때를 입은 간판은 그대로 달려있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10년 전까지도 장사를 했다는데, 대기업이나 농협에서 운영하는 무슨 무슨 마트 장보기가 일상처럼 되어버린 시절에 그곳이라고 건달 수 있었을까. 마을 사람들이 마실 가듯 와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했을 '슈퍼'는 이름만 남긴 채 지난 시간 속에 잠들어 있었다.

가게는 '작은 규모로 물건을 파는 집'을 뜻한다. 돌이켜보면 가게는 또 다른 세계와 만나는 통로였다. '점빵'(점방)이란 격한 발음으로 발화돼야 더 어울리는 것 같은 동네 가게에서 맛동산을 사 먹고 스크류바 아이스크림을 맛봤다. '테레비'가 부려놓은 온갖 광고 상품들은 서울에서 제주까지 공평하게 퍼졌고 가게 진열대는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세상을 바로 눈앞으로 데려왔다. 부산에 사는 영화란 아이(가 있었다면)도 나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린 가게에서 파는 똑같은 얼굴의 공산품들로 이미 연결되어 있었다. 동네 가게는 마을의 이정표 역할도 했다. 어디 어디 가게를 중심으로 마을 길을 안내하면 그걸로 끝이었다. 마을 안 누구누구의 옛집은 잘 몰라도, 쌀집이 있었거나 정미소를 했던 자리는 안다.

동네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겼던 가게는 마을의 변화를 따라 차츰 소멸해갔다. 지금 살고 있는 마을만 해도 정류장 근처에 몇몇 가게만 남아있을 뿐 골목에 흩어졌던 점방들은 다 사라졌다. 고향은 더 심한 편이다.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해수욕장 동네가 되면서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마을 가게들이었다. 버스가 정차하는 해수욕장 입구에서 시작해 모래알이 박힌 해안가까지 먹거리를 중심으로 번쩍이는 가게들이 줄줄이 생겨났다. 주인들은 대개 '외지'에서 온 이들이다. 동네 이름을 상호로 내걸지만 역설적이게도 가게는 그 지역을 품기 어려운 곳이 되어가고 있다. 자연스레 마을 사람들의 정보 교류장이 되었던 어제의 가게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주 시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자 더 큰 동네가

다가왔다. 성안, 성내 그런 말보다 우리끼린 그저 중앙로로 불렸던 제주시 원도심이다. 중앙로엔 학교 앞 문방구, 팔빙수 가게보다 종류 다양한 점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가끔 친구들과 중앙로에 갈 때면 지하상가를 거쳐 이젠 사라진 제일극장 근처 분식집을 찾곤 했다. 입시가 끝난 뒤엔 그 무렵 유행하던 비엔나커피를 마시러 친구들이랑 종종 커피숍에 갔다. 그땐 어른이 된 것 마냥 했다. 기억이 가물거리긴 하지만 오늘날 '천년타워' 건물에 있던 '반죽', 맞은편에 성업했던 '한밤'이 그런 곳이었다.

대학생이 되면서 드나드는 중앙로 가게들의 폭도 커졌다. 지금은 제주시청 주변을 학사로 칭하지만 오랜 기간 명실상부한 대학로는 중앙로였다. 청춘들의 발길이 달던 가게가 모두 그곳에 모여 있었으니 말이다.

먼저 술집이 그 목록에 올랐다. 연극 동아리 선배들과 심시일반해 공연이 끝나고 뒤뚱이를 하며 술에 취해 땀플릿에 '롤링 페이퍼'처럼 적어 내려갔던 짧은 편지글엔 한컷골 골목 어느 술집의 풍경이 스며들었다. 한라산 소주 한잔의 기운도 있겠지만 그날 그 가게에 나보다 훨씬 의연했던 동아리 동기들이 곁에 있어 혼란스러웠던 그 시절을 통과했던 것 같다.

서점도 빼놓을 수 없다. 시험 준비를 위한 참고서를 사러 가던 그런 곳 말고 두발로 기꺼이 향했던 서점이 중앙로에 있었다. 포장지로 책을 싸서 보던 그때, 손글씨체 디자인이 흠어진 '사인자' 서점의 표지는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대학 선배들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사회상을 달리 봐야 한다고 했고 계단을 오르면 달는 사인자 서점에서 사서 읽은 책들은 그 길을 조금씩 열어줬다. 그보다 남쪽 골목에 또 다른 사회과학서점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먼저 인연을 맺은 사인자가 더 각별하게 느껴졌다. 1990년대 초반까지 지인에게 받은 책 선물 대부분도 사인자를 거쳐온 거였다. 몇 년 몇 월 며칠 사인자. 책을 사고 나면 늘 맨 앞장에 기록하듯 그런 사인을 남겼다.

어느 순간 사인자는 중앙로에서 사라졌다. 폐점 소식은 뒤늦게 들었다. 아마도 사인자가 문을 닫은 시기의 내 일상이 무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찾아내던 일에 무뎠던 시절이 아닌가 싶다. 다른 이들도 그럴겠지만, 어떤 가게는 내겐 한 시대였다.

흘러간 역사가 되어버린 가게들은 더 있다. 어쩌면 우린 그곳을 더 사랑해야 했는지 모른다. 매일 들르고, 머물며 가게를 접는 게 미안하도록 만들어야 했다. 쉽게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아야 했다.

피치 못할 개인 사정이 아니라면 자본에 눌러문을 닫는 일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한자리를 줄곧 지켜가는 자그만 가게들에 응원을 보내야 한다. 일본어에서 유래했다는 '노포'(老舗)가 아니어도 좋다. 과묵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대를 이어 가게를 하기엔 우리네 자영업 토양이 척박해 보인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기업형 프랜차이즈가 밀려드는 걸 안다면 근래엔 10년만 똑같은 가게를 꾸려도 주목받을 일이 아닐까 싶다.

지갑을 열어 지불한 만큼 정직하게 내어주는 가게,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가게. 우리 곁의 오래된 가게들은 그런 공통점으로 버텼었다. '진상 고객'이란 말은 있지만 '진상 주인장'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이 있다면 가게를 운영하는 이들은 장인이 되고도 남는다.

그것들은 공동체의 기억을 안고 있다. 이즈음 우스개 소리로 쓰는 '라떼'식의 추억담을 꺼내자는 게 아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가게들이 건강히 숨을 이어갈 때 마을과 도시가 지속가능해진다. 이 같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바람은 신도시에선 가질 수 없는 '특권'이다. 원도심이 오래된 길을 걸어왔기에 그것의 연속성을 바랄 수 있다. 마을과 도시가 유지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과 자본이 얹혀드는가. 가게는 그것들의 만남과 헤어짐을 보여주는 최소 단위의 공간일 수 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새로운 일상은 가게의 풍경을 바꿔놓을지 모른다. 퇴근길에, 짐짓 여유 부리는 주말에 동네 사람들이 북적대던 음식점을 앞으론 흔하게 보기 어려울 듯하다. 우리 곁의 가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아 있을까. 널모레쯤엔 그들의 안부를 물으려 조심스레 집 밖으로 나서봐야겠다.

과거와
현재의
공존

오래된 공간의 가치를 알고 현재의 시각으로
새롭게 탄생한 예술공간 이아, 산지천 갤러리, 리듬앤브루스를 만나보자.

· 예술공간 이아 ·

예술로 치유하다

제주도민의 아픔을 치료해 주던 옛 제주대학교병원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예술공간 이아. 생소한 이름의 '이아'는 조선시대 제주목사를 보좌하던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공간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이아'라고 붙였다. 이곳의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면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차해의원이 들어섰고 광복 후에는 제주도립병원이 자리했다. 이후 제주의료원, 제주대학병원으로 바뀌며, 도민들의 아픈 몸을 치료해 왔다. 제주도민의 아픔을 치료해 주는 과거 병원의 역할처럼 현재의 예술공간 이아 역시 예술로 도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다. 이아의 공간은 지하 1층 갤러리, 3층에 위치한 창의교육실과 카페, 서점으로 구분되어 있다. 갤러리는 2개의 전시관으로 되어 있으며, 평면, 입체, 영상, 설치, 뉴미디어 등 다방면의 시각예술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물 3층에 위치한 창의교육실에서는 매달 다양한 주제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주 소 제주시 중앙로14길 21
운영시간 10:00~18:00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휴관)
전화번호 064-800-9300



· 산지천 갤러리 ·

과거와 현재를 날줄과 씨줄로 잇는 곳

지금처럼 비행기가 술하게 뜨고 내리지 않던 시절, 산지천 끝자락에 있던 산지항은 목포와 부산을 잇는 연락선이 닿는 관문이었다. 제주 섬과 육지를 오가는 사람들과 물자로 제주에서 가장 활기차고 변화한 곳이기도 했다. 또한 이곳의 웅천수는 칠성통과 건입동의 어린아이의 목욕터이자 어머니들의 빨래터이기도 했다. 하지만 사람들로 넘쳐나던 산지천은 개발과 변화의 물결에 묻혀 옛날의 변화함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1996년 산지천 주변이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통해 개발되기 시작했다. 산지천 복원과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으로 산지천변 노후 건물들이 철거되었는데, 옛 녹수장, 금성장, 고씨가옥, 유성식품 등 다섯 곳의 건축물은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건축물로 지정되었다. 산지천 갤러리는 녹수장, 금성장 여관 두 동을 리모델링해 2017년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산지천 갤러리는 사진이라는 미디어 전시를 통해 제주의 삶과 문화의 기록, 사회의 기억을 날줄과 씨줄로 이어가고 있다.

주 소 제주시 중앙로3길 36
운영시간 11:00~19:00 (월요일 휴관)
전화번호 064-725-1208



· 리듬앤브루스 ·

오래된 목욕탕의 변신

제주 관덕정과 동문시장을 지나다 보면 독특한 외관의 카페를 만날 수 있다. 오래된 목욕탕을 개조해 카페로 재탄생한 리듬앤브루스다. 이곳은 제주 구도심의 쌀집을 레트로풍 카페로 만들어 인기를 얻었던 쌀다방이 이전한 곳으로 쌀집에서 목욕탕으로 타전을 옮긴 것이다. 쓸모를 다한 공간에 현재의 감각을 덧입혀 사람들 품으로 되돌린 리듬앤브루스는 단지 커피를 파는 카페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낡고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없애거나 바꾸지 않고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모두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곳의 공간은 1층은 카페, 2층은 라이프스타일 매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카페 메뉴로는 쌀다방때부터 인기를 끈 시그니처 쌀라떼를 여전히 맛볼 수 있다. 또한, 매일 구워내는 촉촉한 빵과 쿠키 등 디저트도 판매하고 있다. 2층은 금속 주얼리, 향 제품, 패브릭 등 주인장의 취향을 확인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매장을 만날 수 있다.

주 소 삼도이동 1073
메뉴 쌀라떼 6,000원 아메리카노 5,000원
운영시간 11:00~20:00
전화번호 070-7785-9160



전통시장과 청년들의 상생 청년몰 생기발랄

청년에게 힘을 실어주고 침체된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조성된 제주중앙로상점가 청년몰 '생기발랄'.
제주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는 청년몰 이야기를 시작한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일을 하면서 경제·사회적으로 선순환 할 수 있다면 내가 사는 이 도시를 더 넓게 그리고 더 멀리 볼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이 지역에 터를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주시는 작년 12월 제주중앙로상점가 청년몰 '생기발랄'을 개장했다.

청년몰이 입주한 건물은 1979년에 지어진 곳으로, 관음사 포교당인 불교 전법회관으로 활용되다 2019년 리모델링해 청년몰 '생기발랄'로 조성되었다. 관음사 포교당은 1924년 관음사를 창건한 안봉려관 스님에 의해 세워졌는데 이후 1979년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전법회관으로 건립되었다. 전법회관은 전 백양사 방장이셨던 지선 스님이 당시 관음사 주지를 맡고 있을 때 완공된 곳으로 당시만 하더라도 최고의 포교당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다 1980년 10.27법난이 일어나면서 전법회관이 군핍발에 짓밟힌 현상이 되기도 했다. 전법회관은 전국 최초의 불교대학을 운영하며, 제주 지역의 불교를 뿌리내리게 한 유서 깊은 곳으로 이번 청년몰 '생기발랄'의 탄생까지 큰 역할을 했다.

청년몰이 위치한 중앙로 상점가는 일제강점기부터 상권이 형성된 곳으로 제주에서 제일 오래된 시장이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도민들의 만남의 장소, 쇼핑의 명소로 독보적 위치를 차지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로 신제주와 일도지구 상권이 발전하고, 2000년대 이후 제주시청 대학로 주변 상권이 급부상하면서 당시 500개가 넘는 점포가 200개 점포로 줄어들며 침체기를 맞았다.

제주 중앙로 상점가에 들어선 청년몰 '생기발랄'은 노후화된 전통시장과 인근상권의 상생을 통해 지역 활성화는 물론 청년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청년몰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규모로 다양한 먹거리부터 제주도 특산물, 공방, 소품숍 각양각색의 제주의 맛과 멋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그 외에도 다목적 문화공간, 물품 보관실, 수유실 등 고객을 위한 편의 시설도 갖추고 있다. 청년몰에 입주한 16개 매장을 지금부터 만나보자.

주 소 제주시 중앙로 11길 1
운영시간 11:00~20:00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



1F

올레마켓 제주 특산품

제주 특산물 중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해산물이다. 올레마켓은 옥돔, 갈치, 고등어 등 각종 제주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제주의 다양한 특산물 쇼핑을 한 장소에서 편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으니 제주에 여행을 왔다면 한 번쯤 둘러보자.

백년 굴화다 굴차, 디저트

제주 귀농청년이 직접 재배한 굴을 가공해 차와 디저트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신선한 과일로 만든 착즙 주스를 마시다 보면 몸이 건강해 지는 기분이 들 정도다. 여기에 마스카포네 치즈와 크림치즈를 브랜딩하고 우유와 감귤을 더한 만다린 무스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로 꼭 맛보길 추천한다.

PICNIC MATE 피크닉 대어 및 판매

제주 오름에서 피크닉 세트를 펼쳐놓고 인생사진을 찍고 싶다면 피크닉 메이트를 방문해보자.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라탄 바구니부터 테이블 보, 커트러리, 와인잔 등 피크닉에 필요한 모든 소품을 대여할 수 있다.

Le Chat Noir 어린이 잠옷, 홈웨어

프랑스어로 검은 고양이란 뜻의 르샹누아는 파리 스튜디오 베르스 출신의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아이들 잠옷 브랜드다. 양중맞은 컬러와 디자인의 아이들 잠옷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눈여겨보자. 파자마 파티의 잠옷으로 손색이 없으니깐.

Island, Memory 감성소품

제주를 담은 감성소품을 사고 싶다면 청년몰 1층의 아일랜드 메모리를 방문해보자. 주황색 문을 열고 매장으로 들어서면 제주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귀엽고 앙증맞은 각양각색의 소품을 만나볼 수 있다.

예한나 한 땀 작업실 생활한복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작업한 생활한복과 복주머니, 노리개 등 전통 소품도 함께 구입할 수 있는 공방이다. 생활한복은 판매뿐만 아니라 대여도 가능하다. 이밖에 제주돌 이어링, 제주감염색 열쇠고리 등 제주 소품도 구입할 수 있다.

2F

비스듬히 감성도시락

비스듬히는 여느 식당과 달리 로고가 유독 눈에 들어온다. 'ㅂ'은 제주의 바람, 'ㅅ'은 한라산, '드'은 제주의 돌, 'ㅎ'은 행복이란 의미를 담은 감성도시락 집이다. 시저 소스로 만든 샌드위치, 치킨텐더, 감자튀김, 컵과 일, 쿠키로 구성된 비스듬히의 피크닉박스 하나면 언제라도 피크닉을 떠날 수 있다. 피크닉박스는 계절에 따라 메뉴가 조금씩 달라진다.

치즈식당 해녀피자

치즈 마니아를 위한 피자가 있다. 바로 청년몰의 치즈식당이다. 치즈 도우에 먹물과 톳을 이용한 마르게르타, 페페로니피자, 치즈피자 등 치즈가 듬뿍 들어간 피자를 맛볼 수 있다. 먹물고르곤졸라피자와 어니언 스프는 이곳의 인기 메뉴로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맛이다.

제주전유화 모듬전

제주의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한 전을 판매하는 식당이다. 제주 고사리를 이용해 만든 제주고사리육전, 메밀과 무를 섞어 만든 제주메밀농뽕을 비롯해 제주해물전, 각종 전류를 맛볼 수 있다. 비 오는 날 전이 생각난다면 고민하지 말고 제주전유화로 달려가자.

고봉강선생 돈가스

밥을 수북하게 담아 주는 할머니의 마음처럼 고봉강 선생은 음식에 정성을 담았다. 보슬보슬한 튀김가루와 두툽한 고기를 사용해 만든 돈가스는 이 곳의 대표 메뉴다. 겉은 바삭한 튀김 옷을 입었지만 속은 부드러운 맛을 자랑한다. 돈가스 외에도 커리, 우동 등의 메뉴도 준비되어 있다.

떡갈비먹젠 흑돼지 떡갈비

제주 흑돼지로 만든 떡갈비와 계우밥을 한 상 가득 맛 볼 수 있는 떡갈비먹젠. 육즙가득한 수제 떡갈비는 부드러운데 고소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기 부족함이 없다. 도시락 포장도 가능하니 가까운 공원에서 즐기는 것도 좋을 듯.

온정떡방 퓨전떡

떡의 변신은 무죄. 온정떡방은 평범한 떡이 아닌 미니 케이크, 떡카롱, 떡바 등 퓨전 한국식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쫄쫄한 식감과 씹는 질감이 재미있는 미니감귤떡바는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 손색이 없다.

ZIZO'S BAO 대만식 샌드위치

제주에서 대만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지조스바오를 추천한다. 대만식 샌드위치와 달걀을 판매하는 곳으로 푸짐한 양과 착한 가격 때문에 가성비 좋은 맛집으로 입소문난 곳이다. 특히 대만식 샌드위치 바오는 땅콩 토핑이 듬뿍 들어가 씹는 재미와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착한혼밥 1인 조리

오롯이 혼자 먹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혼밥. 착한혼밥은 갈치조림, 고등어장식 등을 9,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 혼자서도 조리 음식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착한혼밥에서 나만의 오붓한 식사 시간을 즐겨보자.

아꼬양 다쿠아즈

영 배어 물고 싶은 양중맞은 다쿠아즈를 맛볼 수 있는 디저트 카페다. 제주말차, 라즈베리, 석, 월넛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든 다쿠아즈를 한 입 베어 먹으면 당 충전 완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는 건 덤이다.

3F

고르고 고른 제주 온라인쇼핑몰, 유튜브콘텐츠 제작

제주의 숨은 진주를 찾듯 제주특산품을 찾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마켓. 고객의 고민을 덜어 주는 프리미엄 온라인 마켓으로 제주의 다양한 특산품을 집에서 클릭 한 번으로 구입할 수 있다. 온라인 마켓과 더불어 제주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다.

‘생기발랄’한 16개의 매장을 소개합니다

다방 이야기

칠성통

한 시대의 바로미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음제주 10



제주다방의 효시 '칠성다방'. 성안에서 최초로 다방 명칭 사용 광고(제주신보 1947년 6월 6일자 광고 촬영, 법정 영업허가일은 동년 10월 7일)



1947년 카페 신천지 개업광고(제주신보 1947년 8월 6일)

근대문화예술의 모태는 '카페(Cafe 다방)'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20세기 초반에 파리 몽파르나스의 돔, 로통드, 쿠폴, 셀렉트 등의 카페에서는 예술과 인생에 관한 열띤 토론이 열렸고 많은 예술적 트렌드가 창조됐다. 1940년대~1950년대 서울 명동의 다방, 휘가로, 돌체, 뷔엔나, 모나리자, 문예싸롱, 은하수, 청동다방 등도 그 반열에 있었다. 이 시기 문인·예술가들에게 다방은 종합예술공간이나 다름없었다. 6·25전쟁 속 암울한 시대의 고통을 다방이라는 공간에서 서로 공유·토론하고, 이를 작품으로 남기고, 거기서 발표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제주 칠성통도 다방전성기를 맞던 때가 있었다. 1950년대 칠성통에서 출발한 몇몇 다방을 제외한 대다수 다방들이 1960년대 등장하여 1970년대 지나 1980년대 DJ 음악다방으로까지 변신하면서 다방문화의 절정을 맞이했다.

커피문화의 도래, 태동기 1930년대

1930년대 말 제주성안에도 카페가 있었다. [제주도세요람](제주도청, 소화2년)의 광고란을 보면 '카페 긴스이'의 홍보 글이 게재되어 있다. '카페 긴스이'의 대표는 일본인 사이고간지였으며,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칠성통을 중심으로 제주항에서 멀리 않은 곳에 위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카페라는 상점의 출현은 1911년이다. 초기 파리의 카페 레스토랑을 답습하여 커피, 양주, 양풍 요리를 제공했다. 하지만 일본 카페는 성(性) 상업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카페 긴스이' 역시 낮에는 커피 등 차를 파는 객다점 '깃사딩'이고, 밤이면 술을 판매하는 양풍 요리점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카페 긴스이'는 일본의 가이세키료리(口席 料理)를 파는 화석요리점과 다른 형태인 서양풍의 요리점이며, 이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커피가 제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곧 제주에서 유사 이래 처음으로 서양 커피가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위안처 '칠성다방', 커피문화의 개화기 1940년대

제주에서 최초로 다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인가 받아 개업한 때는 미군정기인 1947년 10월 7일이다(『제주시 50년사』, 2005). 제주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인 일도리(칠성통)에 문을 연 '칠성다방'이 그 효시다. 그 이전 성안에 다방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업소는 무허가일 것이다.

해방 후 제주도는 급격한 인구이동이 있었다. 일본 등 바깥으로 나갔던 제주인 6만여 명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 왔다. 귀향자들 중에는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이른바 '양풍물 먹은자'들이 많았다. 성안의 칠성통 거리에는 이들 지식인들을 비롯한 모더니스트들이 북적대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외지에서 커피맛을 익혀 맛을 알고 있었으며 다방문화를 향유하던 계층이었다. 이들은 커피맛을 갈구했고 설 만한 다방을 원했을 것이다. 그러한 욕구가 일제강점기의 퇴폐적인 카페와는 다른 순수한 다방인 '칠성다방'이 제주 안에 들어서게 된 배경으로 생각된다.

성안에 막 피기 시작한 다방문화의 꽃은 이듬해 발생한 제주 4·3사건으로 주춤했다. 제주 최초의 다방 '칠성다방'이 제주 4·3사건 직전 2월 8일 제주신보에 광고를 낸 후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는데 언제까지 어느 번지에 있었는지 고증할 길이 없다.

제주의 다방은 과연
언제 처음 생겼을까?
제주의 다방들이 생겨나고
없어지기를 반복한
시대별 이야기를 통해
그 시절 삶의 흔적을
느껴보자.

참고자료 역사 문화지(오영주)

다방문화의 르네상스 1950년대

1950년 7월부터 제주, 한림, 성산, 화순항을 통해 1만 여명의 피난민들이 제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초기 제주도에 피난민들 중 상당수가 정부의 고위관리나 부유층 가족들이었다. 그들은 동문시장, 관덕로, 칠성로 일대에 모여들어 제주 토박이들과 뒤섞여 살기 시작했다. 이 일대는 전쟁 시국 속에서도 그나마 활기가 넘치던 변화기였다. 6.25 피란민 속에 학자와 예술문화인들이 유입되자, 중앙 문인과 인간적 교류 기회가 많아졌다. 문화예술의 모든 에너지가 칠성통 일대 다방을 중심으로 응집되었다.

6.25 때 피난 왔던 예술인들
소설가 계몽묵은 문예지를 만들려
신고 다니던 구두까지 팔았고
날마다 들락이던 동백다방은 이제
없지만 1960년대엔 다방들이 외자자 생겨나..."
-문충성 <칠성통> 중-

이 시에서 알 수 있듯이, 1950년대 칠성통 동백다방은 피난 문인들과 언론인들의 아지트였다. 계몽묵은 1951년 봄에 제주에 피난을 와 체류 기간 동백다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제주문인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어렵게 문예지도 발간했다. 제주로 피난 온 언론인 중 1인으로 동아일보 사회부장이었던 광복산도 동백다방 단골이었다. 당시 광복산은 제주신보 편집국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동백다방은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 1954년 동백다방에서 강태석의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제주 현대 미술의 개척자들 만능 홍정표, 소암 현중화, 일석 장희옥, 해정 박태준, 한명성, 김택화, 김병화, 김형찬 등 모두가 동백다방 전시 출신들이었다. 남궁다방은 1955년 조천 출신 안창학 여사가 문을 열어 운영했던 다방이다. 안창학 여사는 칠성통에서 다방을 제일 오래한 사람이다[김익수]. 당시 남궁다방은 정치인, 도의원, 언론인들이 단골이었다[이기형]. 동백다방, 남궁다방을 비롯하여 1950년대 칠성통에는 오아시스다방(1954년), 청탐다방(1959년) 등도 문을 열었다. 다방마다 모이는 사람들의 직업과 취향이 달랐다. 동백파, 남궁파, 청탐파라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단골들이 다방의 이미지를 좌지우지했던 것이다.



<20세기 제주시>에 수록된 동백다방 건물



소설가 계몽묵이 제주 성안 피난시절 지도로 제작된 학생문예지(제주신보 1953년 12월 18일자 광고 촬영, 판매처는 고순하 우생당 서점)

다방의 시련과 대중화기 1960년대

1960년대에는 419혁명, 5.16 쿠데타 등 정치적 격변에 다방은 사행성 업종으로 분류되어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제주 성안의 칠성통 거리 다방도 성할 수가 없었다. 잦은 검열과 단속에 다방업주들은 커피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다. 잘나가던 커피 다방들은 하나 둘 폐업하기 시작해 1962년에는 제주시 관내를 통틀어 14개만이 생존했다. 하지만 커피를 사회화처럼 배격한 시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군사정권이 차기 선거의 표를 얻기 위해 1964년 커피 수입 판매를 허용했으며, 사치 공간으로 몰렸던 다방은 1965년부터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1966년 기준 제주시 내 다방 수는 277개소로 1962년 대비 갑절 수준인 190%로 증가했다.

1960년대부터야말로 칠성통을 비롯하여 그 일대가 다방전성시대를 맞이했는데, 다방 업소는 다음과 같다.

- 칠성통 : 천호다방, 정다방, 호수다방, 무지개다방, 청자다방, 상록수, 송림, 옥다방, 요한다방
- 금강재화인근 : 산호다방
- 동문로터리 : 50년대 동신다방을 비롯한 홍풍, 청담, 정원다방
- 관덕정·한빛골 : 심지다방, 화심다방, 대호다방, 소려다방

당시는 다목적 문화공간이 절대 부족으로, 고객들이 필요에 의해 간담회·전시회·문학의밤·영화의밤 등을 다방에서 연 것이었는데, 오늘날에 와서 이러한 다방들이 초창기 제주문화예술의 터전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칠성통 ‘제2의 명동다방길’, 거리의 응접실화 1970년대

1970년대 제주시는 제주도종합개발 10개년 계획(1971~1981)에 따라 개발이 빠르게 추진되었다. 그 결과 칠성통을 둘러싼 성안지역은 관광산업으로 특화된 제주 경제문화의 중심지로 변모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일도 일동을 둘러싼 주변지역에 다방의 개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 1970년 제주시 총 다방 수는 54개로 전년도에 비해 32%나 증가하였고, 7년도에는 68개로 증가된 후 78년까지 안정된 수준으로 유지된다. 칠성통이 다방문화의 중심지가 된 것은 여러 요인들이 있었으나 1973년 3월 도내에 대형 매장인 아리랑 백화점이 세워져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많아진 것도 그 중 한 요인이다. 신축 건물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빌딩 지하에는 으레 다방영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도시개발의 변화 속에 칠성통 다방은 사랑방이나 문화센터 등 종전의 문화기능은 축소되고 ‘대학생들의 미팅장소’, ‘젊은이의 음악실’, ‘거리의 응접실’과 같은 기능으로 다양화 되었다. 다방이 늘어나면서 고객의 연령층과 취향에 따라 다방의 개성과 분위기도 뚜렷하게 갈라진 결과이다.

특히 70년대 학번의 대학생(제주대, 제주실전대, 제주간호대, 제주교대)에게 미팅은 ‘학점 없는 교양필수과목’으로 간주되었고, 대부분 칠성통 다방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고 서부두 방파제의 바닷길을 걸었다. 제주 문인들도 다방에서 출판기념회 등 모임을 자주 가졌다. 또한, 신문사 기자들이나 사업하는 사람 또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교제의 편의성 때문에 다방을 자주 찾게 되었다.

당시 응접실을 갖춘 집이나 사무실이 많지 않아 다방은 그들의 약속장소와 응접실의 역할도 했다. 심지어 사무실과 사원이 없는 사업주가 다방전화를 이용하여 레지를 비서삼아 개인사업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다방	전화번호
가고파다방 상도1-1241-18	22 0981
가나안커피하우스 일도1-1300-23	52 3881
가든 일도1-1302	22 3210
가람다방 이도1-1516-1	23 3356
가배다방 일도1-1461-5	51 1052
가을에서겨울까지 일도1-1361	53 4918

1988년도 제주도 전화번호부에 나타난 다방상호들의 여러 형태
(자료 : 1988 <전화번호부> 업종편 다방부분)

다방의 양분화와 고전식 다방의 퇴화기 1980년대

1980년대 초 다방은 70년대 트렌드를 답습하였으나, 점차 연령별에 따라 마담과 레지가 있는 고전식 다방과 DJ가 있는 신식 음악다방으로 양분화 되어 나갔다. 고전식 다방은 주로 나이가 많은 층들이 출입하는 찻집으로 마담과 레지 등 여급을 두고 손님과 함께 차(쌍화차, 생강차, 유자차, 녹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거나 음성적이긴 하지만 도라지 위스키와 같은 잔술 양주도 마실 수 있다.

반면 DJ음악다방은 젊은 층이 이용하는 커피집으로 음악 전문인 남성 DJ와 여급이 아닌 아르바이트 학생을 두고 커피를 주문 받으며 배달은 하지 않았다. 메뉴는 커피와 빙수 같은 빙과류이며 DJ가 골라낸 음악을 들으며 낭만을 즐긴다. DJ는 매일 분위기에 맞춰 감미로운 목소리로 음반에 대한 이야기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고객의 신청곡이 적힌 메모지가 DJ박스 구멍으로 들어오면 신청자의 사연을 읽어주며 음악을 보냈다. 예전의 다방은 남성 중심의 공간이었다고 한다면, 음악다방은 특히 여대생들이 선호했으며 젊은 남녀들의 요구에 부응했던 휴식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386세대 대학생들은 대학주변 대학로와 상관없이 모두 칠성통으로 섞여 모여들어 대학생 촌을 만들었다. 그들은 음악다방으로 아지트를 정하고 청년문화를 향유했다. 칠성통 음악다방으로는 ‘심지’와 ‘슈벨트’가 유명했으며, 상호에 다방이란 명칭도 뺐다. 88올림픽을 기점으로 칠성통 다방문화는 다방이란 업소 명칭 대신 커피숍, 커피하우스, 가배 또는 반줄, 소나타, 슈벨트 등 음악가 이름을 사용했다.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던 DJ 음악다방은 대학생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음악 카세트 플레이어 ‘워크맨’이 보급되면서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이들 다방들은 ‘다방’이나 ‘다실’이라는 간판을 내리고 커피숍으로 바뀌며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며 1990년대를 맞이했다.

칠성통 ‘거리의 응접실’ 문화는 좌우에 다양한 의류 매장이 집단으로 들어서면서 ‘로데오 거리’의 쇼핑문화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제는 추억 속 장소가 되어 버린 다방, 386세대들에게 칠성통 음악다방이라는 문화공간은 그들 세대의 뿌리와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문화를 만들어 냈던 기억의 장소로 남아 있다.

카페심지

우리의 공간



사람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고 싶다는
김경은 대표와 나는 짧은 이야기.

심지다방은 1970~80년대 칠성통 인근 음악다방을 대표하던 곳이다. 심지를 다시 부활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다.

칠성통은 유년기부터 대학시절까지 놓고 자란 추억이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스산하게 변해버렸다. 그 시절 추억이 너무 안타까웠다. 이곳을 사람들이 다시 오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 70~80년대 음악다방이자 미팅의 메카였던 심지다방이 생각났다. 40대 후반부터 60대까지 모두가 기억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감하게 용기를 내 이곳에 카페심지를 오픈했다. 물론 상업적인 면에서 투자 가치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 이곳을 기억하고 그 시절 향수를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바로 카페심지인 것이다.

이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카페심지를 통해 자신의 젊은 시절 추억을 소환하는 손님들이 많다. 심지가 반가워서 일부러 찾아왔다고 말하는 손님들도 많다. 심지를 다시 만들 어줘서 고맙다고 끝까지 버텨달라고 말하는 손님들도 있을 정도다. 몇 달 전에는 60대 정도 되는 여성 분이 방문하셔서 심지다방부터 지금은 볼 수 없는 관덕정 분수까지 옛 추억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 관덕정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다며 찾아보겠다고 하셨다. 그날 밤 1972년 오현고등학교 졸업 후 관덕정 분수 앞에서 찍은 사진을 찾았다고 연락이 왔다. 카페심지를 통해 잊고 있었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한 것이다. 카페심지를 통해 젊은 시절 모습을 다시 꺼내 볼 수 있었다는 점이 손님은 물론 저에게도 뿌듯한 경험이었다.

카페심지가 그리고 있는 미래의 모습을 이야기해달라.

카페심지는 다양한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카페 한쪽 벽면에 옛 사진 속 추억을 회상할 수 있도록 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카페 뒤편 야외 테라스에는 작은 정원이 자리하고 있는데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소모임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카페심지는 20~30대에게는 낯설지만 재미있는 레트로 감성을 불러 일으킨다면 그들의 부모세대인 50~60대에게는 아련한 옛 추억의 장소이다. 카페심지를 통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재미난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갈 예정이다.

주소 제주시 칠성로길8
메뉴 아메리카노 3,500원, 카페라떼 4,000원,
레모차 4,000원, 유자차 4,000원
전화번호 064-723-3278

제주의 오래된 맛탐방

30년 이상을 영업하고 있는 노포老鋪들은 존재만으로도 빛을 발한다.
오랜 상권의 역사만큼 침체도 깊어 많은 노포들이 사라져갔다.
그 외중에 중앙로, 칠성로, 서문로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노포들을 찾아가 본다.

참고자료 및 사진 양용진 제주향토음식보존연구원장



제주시 중앙로

70~80년대 제주 교통, 경제의 중심지였던 중앙로. 특히 1983년 제주시 최초의 지하상가가 동서로 들어 서면서 제주 유행을 선도하는 핫플레이스이기도 했다. 하지만 신제주 조성으로 거주지역과 행정기관 등이 대거 이전하면서 서서히 침체의 길을 걸었던 중앙로, 현재는 몇몇 식당만이 버텨내고 있다.



제주 해장국의 전설 미풍해장국

제주에서 해장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집이 바로 미풍해장국이다. 음식평론가 1세대였던 백과 홍성유 선생이 선정한 맛집으로 소개되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누렸던 곳이기도 하다. 영업인기는 76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장사를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이라고 한다. 지금은 며느리가 기술을 오롯이 물려받아 그 맛을 이어가고 있다. 여전히 허름한 그래서 더 친숙한 느낌의 미풍해장국은 칼칼하고 진한 고추기름을 듬뿍 사용하는 해장국으로 유명하지만 단골들을 사로잡는 것은 겉돌여 나오는 물 각두기이다.

주 소 제주시 중앙로 14길 13
☎ 전화번호 064-758-7522



제주의 위생영업허가 1호 함흥면옥

함흥면옥은 제주에서 1호로 위생 허가를 받은 식당이다. 한국전쟁 당시 이북에서 피난 온 창업주가 1960년대 중반에 장사를 시작해, 20여 년 후 현재 업주의 아버지가 인수한 것이 70년대 초반이다. 이후 부자가 45년을 이어오고 있다. 한반도 가장 남쪽 섬에서 이북 음식으로 식당영업허가 1호점을 등록했다는 사실이 재미있다. 그렇게 제주도 사람들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북한 냉면을 일찍 맛보았다.

주 소 제주시 관덕로43
☎ 전화번호 064-722-2837



20년 전 가격 그대로 받고 싶다는 에바다식당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면 테이블 4개를 다닥다닥 붙여놓은 것이 좁지만 정겹다. 1990년에 문을 열어 20년째 장사를 하고 있다. 찌개류와 국수로 이루어진 메뉴판은 모두 4000원 이하 가격이다. 작고 허름한 식당이지만 내부는 깨끗하고 음식도 옛날 반찬이지만 정갈하다. 볶은 애호박을 얹어 내온 국수 한 그릇은 할머니가 끓여준 음식을 생각나게 한다. 연세 지긋하신 동네 어르신들이 꾸준하게 드나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 소 제주시 관덕로8길 8
☎ 전화번호 064-753-9672

제주시 칠성로



중식당의 원조 아주반점

한국전쟁 전후로 중국 화교들이 제주에 대거 유입되면서 1960년대 중국 식당들이 개업하는데 그 선두에 아주반점이 있었다. 1962년 칠성로 외진 골목 안에 식당을 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인기를 끌었다. 이 골목을 '아주반점 골목'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1970년대 제주시내에서 외식하는 집은 십중팔구 이곳에서 짜장면을 먹었다. 창업자인 '범씨'일가가 1980년대 초반 한국을 떠나면서 현재 주인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지금도 아주반점의 과거 명성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 소 제주시 관덕로13길 4
☎ 전화번호 064-722-5161

칠성로가 제주 상업의 중심지이던 1970~80년대에는 고급 제과점과 원두커피 전문점, 초밥집, 한정식 전문점, 레스토랑까지 곳곳에 다양하게 자리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눈에 띄게 줄어서 식당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그래도 이름만으로 제주 사람들을 추억에 젖게 만드는 오래된 식당들은 아직도 건재하다.



순두부찌개의 전설 신해바라기 식당

1979년 '분식집'으로 문을 열었지만 대부분 손님들이 순두부찌개에 빠져들었다. 대부분의 분식집이 매끈매끈한 공장 순두부를 끓여주는데 이 집은 직접 만든 구수한 순두부를 끓였고 특히 칼칼한 양념은 강렬한 맛을 좋아하는 젊은 층의 입맛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현재는 창업자인 어머니가 10여 년 전 암으로 돌아가시고 딸이 이어받아 끓여내고 있다. 보통 매운 맛이 다른 집의 아주 매운 정도이기 때문에 매운 정도를 확인하고 주문해야 한다.

주 소 제주시 관덕로13길 13
☎ 전화번호 064-757-3277



흑돼지 거리의 터줏대감 탕부평

1984년 제주 토박이인 창업자는 인천 부평이 고향인 아내와 탕동에서 장사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탕부평이란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당시 제주 사람들에게는 좀 생소했던 대패삼겹살로 인기를 끌었다. 이곳이 유명해지면서 조금 외진 곳인데도 다른 식당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지금은 유명한 식당거리가 되었다. 현재는 딸 부부가 대를 이어 운영 중인데 커다란 솔뚜껑 불판이 이채롭다. 생고기만 취급하며 다양한 밑반찬과 냉면을 무료로 제공한다.

주 소 제주시 관덕로15길 26
☎ 전화번호 064-721-7869

제주시 서문로



복 대신 멜, 갈치 복집식당

1969년 10월짜리 우동을 삶아서 팔기 시작한 것이 식당의 시작이었다. 이후 제주에서 많이 잡힌 복어를 사다 복국을 끓여 팔았고 인근 제주대 교수들과 공무원 등 손님이 늘었다. 10여 년 복국을 팔다가 복어 어획량이 감소해 복국을 포기해야 했다. 대신 제주에서 많이 나오는 갈치로 국을 끓였다. 여름에는 멜을 사다가 국을 끓였다. 한 가지 철칙은 냉동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물 갈치와 멜을 그때 그때 사다 조리한다. 제주 사람들의 전통적인 국 맛 그대로 끓인 것이 이 집의 대표메뉴가 되었다.

주 소 제주시 비룡길 5
☎ 전화번호 064-722-5503

서문로는 예부터 제주시의 중심이 불리는 관덕정의 서쪽 지역을 일컫는데, 제주읍성의 서문이 있었다는 위치에서 비롯된 지명이다. 1970년대까지 서문시장이 제주의 가장 큰 재래시장이었고 주변으로 거대 상권이 만들어져 있었다. 이곳은 70년대 최대 먹거리 골목으로 서민형 먹을거리가 넘쳐났다. 하지만 제주시청 이전, 대형 할인마트 등장 등 재래 상권의 몰락과 함께 침체기에 빠져들었다. 많은 노포들이 사라져갔지만 그 와중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들도 분명 존재한다.



자가 제면의 자부심 송림반점

이 집의 면은 다른 중국집과 달리 매우 가늘다. 일반적인 중화면의 절반 정도 두께다. 이렇게 가는 이유는 손님들이 좋아하기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동네 골목마다 중국집이 들어서면서 공장에서 생산된 중화면을 당연한 듯 사다 쓰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그것이 오히려 품질관리 면에서 유리했지만 송림반점은 직접 면을 만들어 음식을 만든다. 이것이 40년을 버틴 원동력일 것이다. 43년생인 주인장은 10여 년 전 아들에게 주방을 내주고 지금은 카운터에 앉아 단골들과 대화를 나눈다.

주 소 제주시 관덕로 2-1
☎ 전화번호 064-758-4229



호남과 제주 맛의 콜라보 태광식당

목포가 고향인 부부가 제주에 정착해 식당을 열었다. 처음에는 여름철 물회가 인기가 높았다. 제주 사람들이 잘 쓰지 않던 고춧가루 양념을 많이 사용하면서 매운맛으로 무장한 빨간 물회가 여름철 인기 메뉴가 되었고 예나 지금이나 맛있는 제주 돼지고기를 빨간 양념으로 주물럭을 만들어 팔았다. 오삼불고기가 인기를 끌던 90년대 후반 한치주물럭을 돼지고기와 함께 조리해 팔았는데 제주를 대표하는 향토 음식으로 거론될 정도였다. 지금 이 집의 대표 메뉴는 돼지고기주물럭과 한치주물럭이다. 건더기를 다 먹고 밥을 볶아 먹으면 배는 부르는데 바닥을 긁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주 소 제주시 탐들로 144
☎ 전화번호 064-751-1071

대동선구사



1981년부터 원도심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대동선구사. 겉모습은 낡고 오래된 선구사지만 그 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80~90년대 제주 어부들의 삶의 한 장면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선구사를 통해 좌절도 있었지만 영광의 순간도 누렸던 김종호 사장님의 값진 인생도 만날 수 있다.



제주를 대표하는 선구점

장사를 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1981년 선구사를 처음 시작했으니 40년 정도 원도심에서 장사를 했네요. 지금은 아들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장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대동선구사를 시작하기 전에 서울 중앙청 소속 계약 공무원으로도 일을 했고, 군대 제대 후에는 동아제약에 입사해 사회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성실하게 일한 저에게 돌아온 건 거짓과 배신이었죠.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사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첫 사업은 서부두에서 분식집을 했어요. 흔히 서부두하면 횡집을 생각하겠지만 회를 먹고 나면 따뜻한 음식을 찾을 것 같았죠. 그래서 그 당시 획기적이었던 핫도그를 팔았어요. 장사는 잘됐지만 기름이 문제였죠. 최고급 기름을 가져다 썼는데, 파는 물량보다 기름값이 더

나오는 상황이 되니 분식집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죠. 친누나에게 분식집을 넘기고 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버지 소유 이발소에서 선구점을 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그 순간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당시 선구점 수가 적어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이발소 자리를 달라고 했고, 그렇게 대동선구사가 문을 열게 되었어요.

장사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제주도는 여름이면 한치 낚시가 한창인데, 한치를 낚기 위해서는 찌가 필요해요. 그 찌를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물을 먹으면 찌가 뜨지 않아 낚시꾼들이 항상 불만이었죠. 플라스틱으로 상봉을 만들면 관촬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상봉 만드는 일에 몰두했죠. 상봉을 주물로 뜨고 플라스틱으로 만들 업체를 찾고 가장 이상적인 상봉 모양을 디자인해 플라스틱 상봉을 제작했어요. 초기 상봉은

생각보다 잘 팔렸어요. 손님들이 사용하고 보완할 점을 말해주면 수정하고 팔고 이 순서를 반복했죠. 상봉의 색도 초록색에서 화려한 원단을 입히기 위해 한복 천에서 수명복 원단까지 정말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서 다양한 상봉을 개발했어요.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끌어 육지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어요. 일 년 내내 바느질 공장을 풀가동 할 정도로 히트 상품이었죠. 지금은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고무 상봉을 주로 써서 플라스틱 상봉은 많이 찾지 않는데, 내 상봉을 한치가 잘 문다며 아직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 지금도 플라스틱 상봉은 만들고 있어요.

장사를 하시면서 수많은 손님들을 만났을 텐데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나요?

하루는 한 여사분이 찾아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선장이었는데, 돌아가시면서 대동선구에 외상값이 있으니 꼭 갚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돈 안 갚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돈보다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40년 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힘(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어부들이죠. 배를 탄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든 직업 중 하나가 어부인데 항상 옆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 대동선구사였으면 좋겠어요.

아버님이 아드님에게 장사 노하우를 하나만 알려 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대동선구사가 지금은 제일 크지만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는 자본도 없고 정보도 없고 규모도 제일 작았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설움도 많이

받았죠. 물건 받으러 가면 대동선구가 어디냐고 무시도 많이 당했어요. 그럴수록 더욱 부지런하고 친절하게 장사를 했어요. 남들보다 1시간 먼저 문 열고 1시간 늦게 문 닫으면서 일을 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도 남들과 차별화된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야 해요. 자본과 규모에서 안 된다면 성실하거나 친절함을 자신의 무기로 만들어서 영업을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언제까지 장사를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도 대동선구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고 플라스틱 상봉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지만 체력이 된다면 계속 나와 장사를 할 생각이예요.

충옥당표구사



표구는 작품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화려한 옷을 입히는 작업이라고 말하는 구봉식 사장님. 40여 년간 표구거리에서 수많은 작가와 그들의 작품을 함께 만들어 간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작품에 옷을 입히다

표구사를 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제주도에서 40여 년을 일했어요. 1979년 11월에 제주로 내려왔는데, 처음에는 3년만 일하다 다시 서울로 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살다 보니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표구 일을 하고 있네요.

표구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70년대에는 기술을 배워야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배운 기술이 표구 기술이었죠.

표구 작업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표구는 서화를 종이나 비단 등을 써서 액자, 병풍, 족자를 만드는 일이에요. 액자표구의 경우 우선 비단을 마음질하고 서화를 배접하는데 배접은 23번 하며 풀을 고루 먹여 잘 말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 비단을 붙이는데 이때 그림과 비단 사이에 금선이나 색지를 넣은 후 액자에 담으면 완성되죠. 고서화古畵口의 경우 작품의 훼손 정도에 따라 복원 과정이 정교하면서 까다로워서 전문 기술자만이 가능한 작업이에요.

한때 이곳은 표구사 거리로 영광을 누린 동네였는데, 그 시절 이야기가 궁금해요.

제주에 내려와 표구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표구 거리에 표구사는 한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80년대가 지나면서 액자를 고급으로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제사 지낼 때 사용하려고 일본 교포들이 제주에 올 때마다 병풍도 많이 사갔어요. 그리고 제주도는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 앞에 병풍을 놓고 지내거든요. 한 집에 병풍이

2개 정도는 기본으로 있다가니까요. 이도1동이 병풍거리로 소문이 나면서 한두 군데였던 표구사가 20곳까지 늘어 났죠.

이도1동에 표구사가 밀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바로 밀이 동문시장이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차보다 걸어서 다니던 시대여서 동문시장을 가려면 모두 걸어서 이곳을 지나가야 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자연스레 이곳에 표구사가 밀집하게 된 것 같아요. 어디든 사람들이 모여야 장사가 잘 되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나요?

지난 6월에 제주문예회관에서 '19회 해정 박태

준 선생 추모 서전'을 개최했는데 전시한 고(故) 해정 박태준 선생 작품을 표구했어요. 해정 선생은 행·초서의 대가로 제주도 서예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예요. 그리고 제주도 출신이자 한국 근·현대 서예가 1세대인 소암 선생의 작품들 표구 작업을 했어요. 저희 표구사에도 소암 선생 작품이 걸려 있는데, 세상을 뜨기까지 일생을 서예와 함께한 분이세요.

표구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표구는 작품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으로 비유하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표구도 마찬가지예요. 작품에 옷을 입히는 작업이 표구인데, 그 옷이 어떤 모습이나에 따라 완벽한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으니까요.

장인으로 젊은 세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표구를 배우려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예술학교에서 예술품 복원을 가르치지만 실무 경험이 없다 보니 실제 복원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제 나이가 올해 68살인데 인사동 가면 제가 막내예요. 앞으로 20년 안에 표구를 할 수 있는 장인이 사라질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일도 많이 없고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것도 이해는 해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전통을 보존하면서 젊은이들과 저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았으면 해요.

동양장미용실



동네 할머니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동양장미용실. 손님과 함께 나이를 먹어 가고 있는 김순현 사장님의 40년 미용실 이야기를 만나보자.



동네 사랑방

미용실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미용일은 좋아서 배웠어요. 결혼하기 전에 KAL호텔 미용실에서 일했는데, 아침에 일하고 나면 돈이 수북수북 쌓일 정도로 잘 벌었죠. 결혼을 하면서 미용실을 그만뒀는데, 남편 혼자 벌어서는 생활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미용일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40여 년 미용실을 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미용실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단골 손님이라서 가끔씩 나누는 대화가 있는데 손님하고 원장하고 같이 늙어 간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요즘 어떤 스타일이 유행이야? 머리 예쁘게 해줘요”라고 주로 이야기를 했다면 요즘은 “허

리가 아프더니 아젠 다리까지 아파”라면서 이야기 주제가 달라졌어요. 같이 늙어 간다는 의미겠죠. 동네 할머니들은 집에 생선이 많으면 생선을 준다고 오셔서 놀다 가세요. 간판은 미용실이지만 동네 사랑방이에요(웃음).

지금은 구도심이 되었지만 한때 이곳은 변화한 영광을 누린 동네였는데, 그 시절 이야기가 궁금해요.

이곳에서 미용실을 시작했을 당시 동문로터리는 큰 변화가여서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장사도 잘 됐죠. 그리고 80년대까지만 해도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많이 왔잖아요. 신혼여행 오면 꼭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기 때

문에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어요. 이 근처에도 호텔이 있어서 신혼부부 손님들이 많았어요.

미용실을 하면서 수많은 손님들을 만났을 텐데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나요?

너무 많죠. 그 중에서 밤업소에서 일하는 단골 손님이 있었는데, 결혼식도 못하고 아이만 낳고 살았는데, 아이가 더 크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화장부터 머리, 결혼식 음식까지 도와줘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힘든 사정을 다 아니까, 도와줘야죠.

옛날부터 사용하던 불고데기를 계속 사용하는데 최신 기계로 바꾸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도 10~20만 원 하는 고데기는 있어요. 그래도 불고데기를 지금까지 사용하는 이유는 전기 고데기보다 유지력이 좋아서 머리 모양이 이틀도 가요. 지금도 불고데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고데기가 배우기 힘들지만 사용하면 정말 매력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바뀌지 않고 남아 있으면 하는 것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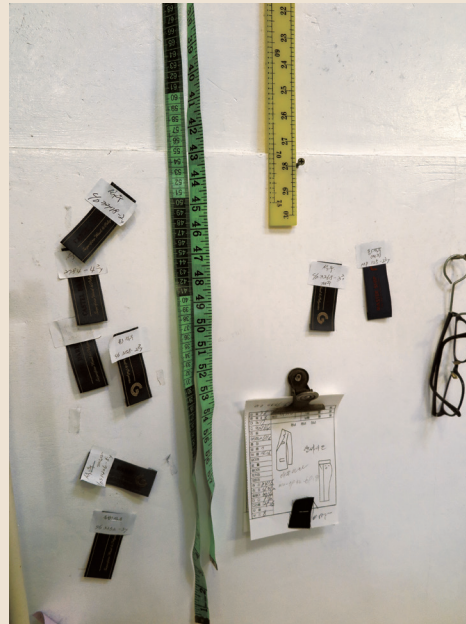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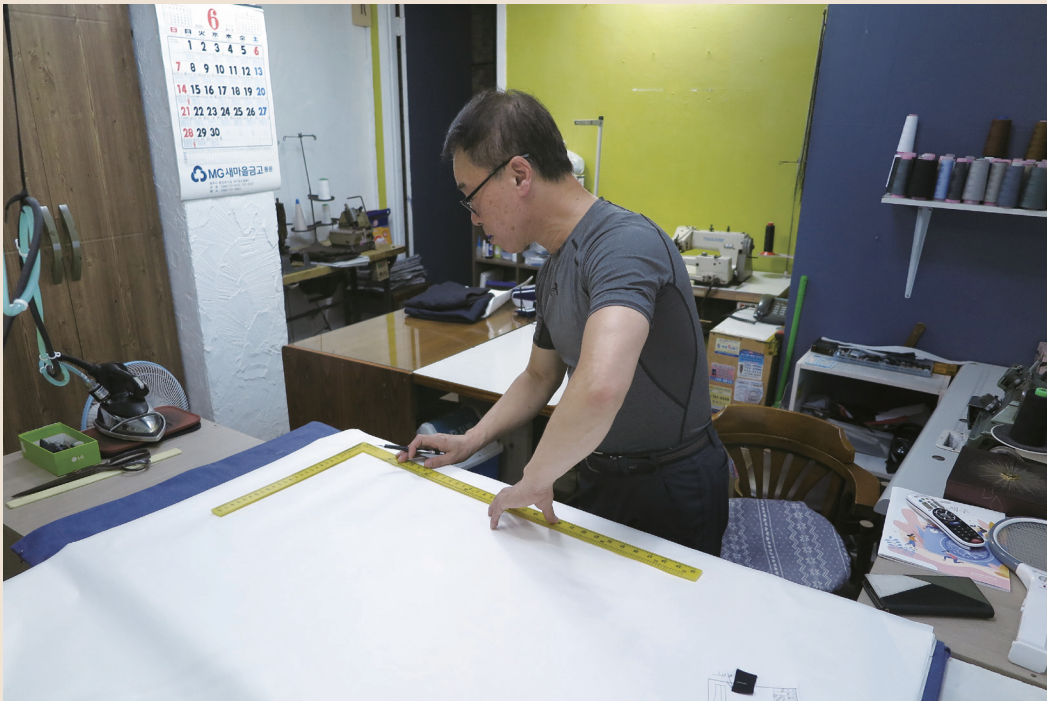
저희 같은 작은 동네 미용실이요. 이 동네에도 10곳 중 8곳은 혼자 하는 미용실인데, 우리 같은 미용실이 자꾸 문을 닫으면 할머니들은 머리를 어디서 하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브랜드 미용실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가지만 할머니들은

예약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리고 비싸서 못 가요. 우리는 오래 하다 보니 파마한다고 하면 스타일도 가격도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줘요. 할머니들이 머리 하러 와서 놀다 갈 수 있는 우리 같은 미용실이 오랫동안 남아 주면 정말 좋겠어요.

언제까지 장사를 하실 계획인가요?

어느 날 생각해보니 미용 일이 적성에 맞더라고요. 직원 없이 혼자서 하기 때문에 체력이 되면 계속 할 생각이예요.

아하맞춤



70년 후반부터 한 눈 팔지 않고 40년 이상을 양복 만드는 일을 한 이영훈 사장님. 인생의 절반 이상을 원도실 안에서 양복 만드는 일에 몸 바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한 땀 한 땀 인생을 수놓다

장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1974년 부산에 있는 공장식 세탁소에 취업을 했어요. 일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기술을 배울 수 있던 생각에 열심히 일을 했죠. 어느 날, 사장님이 세탁소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며, 함께 서울에 가서 일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 당시 서울은 가기가 싫었어요. 서울 대신 부산 서면에 있는 양복 제작 공장에 취업을 했고 2년 후 옮긴 포항 공장까지 열심히 기술을 배웠어요. 그러다 군대를 갔고 제대 후 포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제대할 무렵 아는 지인이 제주에도 양복 맞춤하는 일이 많이라며 본인 회사로 들어오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곳이 바로 두마 양복점이었죠. 두마에서 5년 정도 일을 한 후 결혼을 했어요. 결혼도 했고, 일도 이제는 전문 기술자가 되었으니 독립하기로 결심한 후 지금의 칠성동에 자리를 잡았어요.

장사를 하면서 수많은 손님들을 만났을 텐데 기억

에 남는 손님이 있나요?

어떤 남자분이 양복을 맞추고 한 달이 지나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중년의 여성분이 한 달 전쯤 남자 양복 맞추는 거 나왔냐며 전표를 가지고 오셨는데 남자분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말씀이 얼마 전에 아들이 죽었는데, 죽기 전에 좋은 옷을 입고 가고 싶었는지 돈없이 양복을 맞췄다며 잔금 이랑 옷을 찾으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인데 가끔씩 생각이나요.

지금은 구도심이 되었지만 한때 이곳은 변화한 영광을 누린 동네였는데, 그 시절 이야기가 궁금해요.

지금은 칠성통이 사람이 없어서 적막하지만 80년대만 해도 거리에 사람이 부딪혀서 못 다닐 정도로 변화가었어요. 학사주점들도 모여 있어서 젊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죠. 86년도 칠성통에서 양복점을 운영하려고 6평짜리 매장 권리금을 600만 원 정도

주고 계약을 했다니까요. 그 당시 600만 원이면 큰 돈인데 그 정도로 이곳이 인기가 좋았죠. 장사도 잘됐어요. 아침 9시에 문을 열어서 저녁 9시까지 손님들 치수 재는 일만 했어요. 저녁 9시에 셔터문을 내리면 그때부터 양복 제작을 했는데 밤샘 작업을 수시로 했어요.

80년대 맞춤 양복에서 90년대 기성복이 등장하면서 맞춤 양복은 쇠퇴기를 맞았는데, 지금까지 장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80년대는 맞춤 양복 전성기였죠. 그러다 삼성에서 나온 SS패션의 기성복 양복이 품질이 좋아서 사람들이 점점 기성복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기성 정장의 품질이 맞춤 정장에 비해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일감이 서서히 줄어들었죠. 지금은 맞춤 정장 대신 수선하는 일이 더 많아요. 양복 제작을 정식으로 배운 사람이 생각보

다 제주도에 많이 없어요. 양복을 만드는 일은 상당히 복잡한 작업이에요. 바느질 방식이나 재단 방식, 양복 스타일에 따라서 고난이도 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계로 찍어낸 양복을 수선하는 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해요. 양복을 수선하는 기술이 나 만큼 좋은 사람이 제주도에 많지 않아요 (웃음). 지금까지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건 제 기술을 믿고 맡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같아요.

사장님이 생각하는 맞춤 양복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기성복은 이미 만들어진 옷에 자신의 몸을 맞추기 때문에 어딘가 살짝 불편해요. 그런데 맞춤 양복은 자신의 몸에 옷을 맞추기 때문에 편안하고 옷맵시도 예쁘죠. 그리고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을 위한 옷이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지요.

이것만큼은 바뀌지 않고 남아 있으면 하는 것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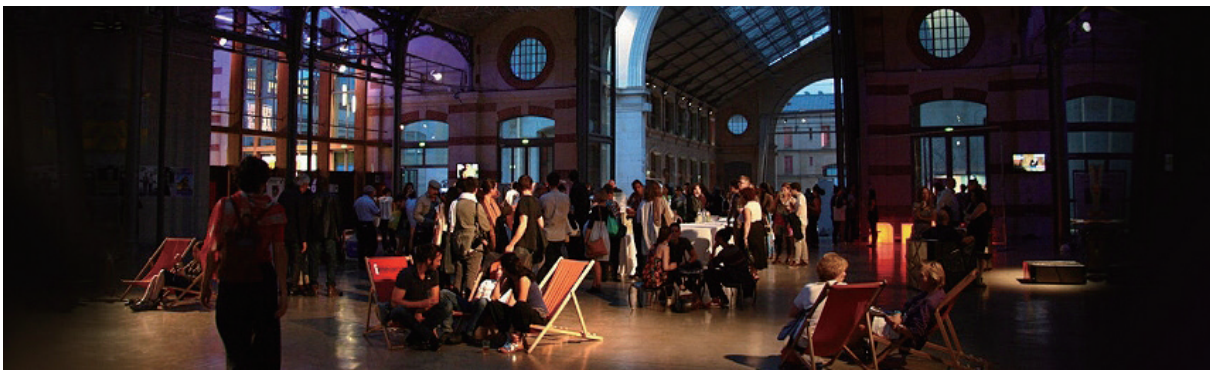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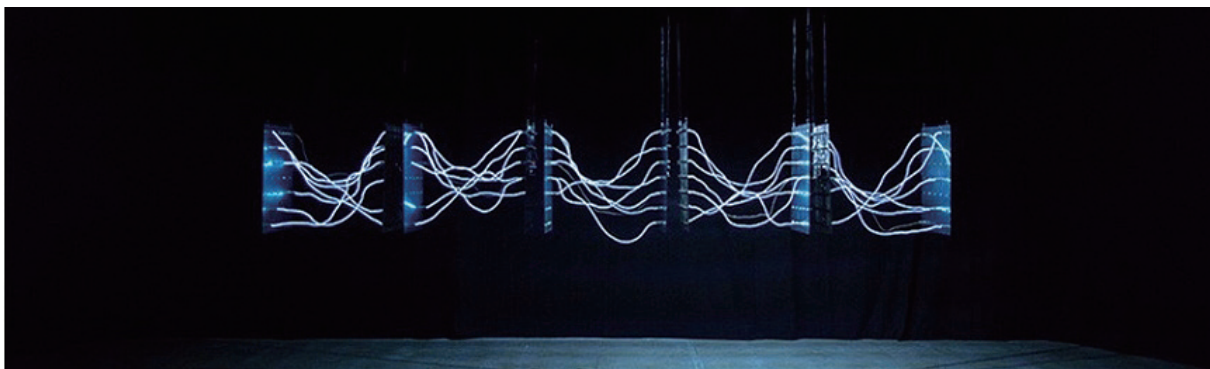
80-90년대만 해도 칠성통에 양복점, 양화점, 의상실 등 의류 관련 업체가 20여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하'와 '두마' 2곳만 남았어요. 양장 기술이 쇠퇴했다고는 하지만 전부 사라져 버리는 것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전문 기술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장사를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가요?

기술직이라는 것이 정년이 없잖아요. 친구들은 다들 정년 퇴직해서 집에 있는데, 저는 건강만 허락한다면 계속 일 할 생각이예요. 그래서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로 옷을 입은 도시재생

침체된 구도시가 갖고 있는 환경과 전통을 존중하면서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두 도시가 있다. 장례식장을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만든 ‘프랑스 썩카트르’와 제주 건입동의 아름다운 모습을 문화예술과 접목시킨 ‘2020 건입동 문화예술 공감 프로젝트’다. 문화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두 도시 이야기를 만나보자.



장례식장에서 피어난 문화예술

파리의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제19구 오베르빌리에rue d'Aubervilliers 거리에 위치한 썩카트르 Cent Quatre는 1873년에 지어진 장례식장이었다. 이 곳은 1997년 폐쇄된 이후 방치되다 2008년 새로운 종합문화예술센터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곳은 예술가들의 작품 활동 및 공연을 위한 창작 스튜디오로 예술가들을 위한 레지던스, 작업실 및 공연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술 영역도 미술, 음악, 작곡, 소설, 사진, 건축, 조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선정된 예술가들은 짧게는 한달, 길게는 일년까지 이곳에 거주하며 전시, 워크숍을 진행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뉴미디어 아트 장르의 다양한 작품도 감상 또는 체험할 수 있다. 프랑스 작가인 마르탱 메시에Martin Messier의 'Impulse' 작품에서는 전기의 흐름을 사운드로 변형시켜 그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나오고 그 사운드의 흐름과 동일하게 빛의 운동 경로와 에너지 순환의 장면을 연출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썩카트르는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찾아 올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창작의 주체도 예술가가 아닌 시민이 직접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생활 속 문화예술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La Masion Des Petits란 공간은 보호자를 동반한 5세 미만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이곳에서는 놀이와 예술을 통해 다양한 창

작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이 공간은 미탈리 클라세 Matali Crasset 작가가 디자인했으며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창작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난감 가구, 그림책 등 작가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썩카트르는 이곳 주민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는 공간이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운동을 하거나 주말이면 피크닉을 나오기도 하고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기도 한다. 이처럼 썩카트르는 어렵고 다가가기 힘든 예술이 아닌 주민들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예술가들을 위한 레지던스, 스타트업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까지 진행하며 주민의 곁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2020 건입동 문화예술 공감 프로젝트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침체되어 있는 제주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2020 건입동 문화예술 공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건입동의 아름답고 다채로운 모습을 문화예술과 접목시킨 프로젝트로 건입동 문화예술 공연 공모를 통해 예술단체를 선정 후 공연 및 녹음 진행에 대한 영상을 촬영했다. '도시재생 예술공감 프로젝트'에는 총 7팀의 예

술단체가 참여했으며, 제주4.3 당시 수용소로 활용했던 건입동 주정공장 옛터에서 영혼들을 위한 위로 공연 '잠들지 않는 남도', '영이자랑'을 첫 시작으로 바다에 비친 달빛과 밤바다의 적막함 속 고요한 슬픔이 배어 있는 시간을 음악으로 그린 작품인 '애월Moon Light'로 피아니스트 김경택씨와 색소폰 고결씨 그리고 무용가 안지석씨가 음악과 무용으로 4.3의 영혼들을 위로하였다.

세 번째 아티스트는 힙합 댄서 고보나씨로 'keep it real'이란 곡에 맞춰 건입동 골목을 누비며 공연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고보나씨는 곡의 의미처럼 건입동 골목골목마다 본연의 모습을 지켜가면서, 문화예술 공감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재생을 이뤄나가는 마음을 댄스를 통해 표현하였다. 네 번째 아티스트는 어찌다 밴드로 건입동 인성이용원, 산지향 등대, 옥상에서 공연을 촬영했다. 공연 곡의 제목은 순서대로 '덤덤히, 숨이 차올라, 고백'이다. 공연에 참여한 김경수(보컬), 조재욱(드럼), 이희정(베이스 기타), 한정용(일렉기타)는 문화예술 공감 프로젝트가 제주의 문화예술인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고,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어쿠스틱 트리오 스프링 플라워(Spring Flower)가 다섯 번째 아티스트로 참여, 상실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그리워라'의 뮤직 비디오를 촬영했다. 이 노래를 통해 건입동 주민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젊은이들을 위로는 공연도 준비되었는데, 기타와 피아노로 구성된 뮤지션 가넷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번 공연 곡의 제목은 'kidult'로 학업, 취직, 결혼으로 이어지는 암묵적인 사회의 룰을 벗어나, 천천히 자기만의 속도로 삶을 살아가는 철이 없어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지막 아티스트는 가드림으로 '진달래' 곡을 공연했다. 연을 진행한 가드림의 윤영로(보컬), 박산하(하모니카)는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현 시점에서 숨을 고르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내어 공연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의 문화예술계가 침체되어 있는 이 상황을 모두가 힘을 합쳐 현명하게 극복해나갈 바라며, 제주에 예술공감 프로젝트와 같은 문화예술 공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길 바란다고 하였다.

사진으로 남은 그 시절 우리의 이야기

2019년 제주시 원도심
근·현대 사진수집 아카이빙 사업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오래된
사진들.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사진으로나마 그 시절을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제주의
근·현대 사진을 수집했다.
제주의 근·현대사를
함께 견뎠던 사진 속으로
추억 여행을 떠나보자.



01



02



03



04

- 01 해수욕장. 제주도 삼양동. 서재철. 1967
- 02 동한두기. 서재철. 1968
- 03 백중날 물맞이. 도두동. 서재철. 1967
- 04 탑동. 김상부. 1989



01

01 오일장날 수박장수. 서재철. 1968
02 식수배급 급수행렬. 제주시. 서재철. 1967



02

FOCUS



도시재생 알면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다양한 사업을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광해, 빛의 바다를 만나다

제주광해문화제

빛과 바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 광해(光海). 이름처럼 화려한 빛의 길을 걸었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을 겪었던, 최고의 자리에서 유배의 운명을 받아야 했던 비운의 왕. 드라마틱한 삶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 있는 제주에서 그를 만난다.

‘광해’를 핵심 콘텐츠로 제주시 원도심 지역의 정체성 강화를 통한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 발굴 및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있다. 광해군 삶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4개의 테마로 설정하여 원도심의 공간들과 연계, 원도심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참여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주요 테마로는 광해군의 세자시절 이야기를 다룬 ‘여명의 바다’, 왕이 된 광해군을 만나보는 ‘영광의 바다’, 유배인이 된 광해군 이야기 ‘황혼의 바다’, 광해군과

제주의 인연, 원도심과 새로운 인연을 맺는 ‘인연의 바다’이다. 세자 광해의 하루 체험 등 테마에 맞는 전시, 교육, 체험, 경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소규모 및 온·오프라인 비대면으로 준비 중에 있다.

특히 원도심 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조선시대 국장의 의미를 살리는 장례문화에 대한 교육 및 장례 음식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다. 또한 원도심 내 청년몰, 식당, 커피숍 등과 연계한 광해의 요리사 프로그램을 통해 원도심 곳곳에서 새로운 광해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시대를 뛰어넘어 재조명 되고 있는 광해군처럼, 다시금 빛날 원도심을 위해 광해 콘텐츠를 중심으로 원도심과의 인연 맺기 등 다양한 원도심 콘텐츠 발굴 및 육성하고,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주민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신의 집을 수리해드립니다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원도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이 추진 중이다.

원도심 지역의 노후 전통주거 및 근대 건축물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환경 인프라 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 및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집수리지원사업은 제주시 원도심(모란지구)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4월 ~ 6월에 걸쳐 모집 공고를 통하여

1, 2차로 나누어 총 42가구를 확정하였다. 이후 현장방문 및 건물주 인터뷰를 통하여 지원내역을 확정하고 집수리 지원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주거지 주변 돌담 울타리 조성사업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제주 고유의 생활문화인 돌담을 조성하여 제주형 주거지 경관 조성 및 지역의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돌담 문화를 통하여 원도심만의 고유한 정체성 회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원도심과 골목을 바꿀 창업가들이 모였다! 제1회 도시재생 스타트업 챌린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제주대학교LINC+사업단이 공동 주관하는 『제1회 도시재생 스타트업 챌린지』로컬캠프가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제주시 칠성로 상점가 일원에서 개최됐다.

센터와 혁신센터는 지난 2017년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2018년부터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리노베이션 스킴 in Jeju' 등 공동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에는 제주시 원도심 마중물사업인 '칠성로 문화이시장' 사업과 연계한 '제1회 도시재생 스타트업 챌린지'를 추진한다.

칠성로상점가와 원도심 일원 상생협약 공간을 대상으로 창업가를 발굴하여 연계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창업지원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제주산학융합원, 제주대 큰내일센터, 제주청년센터 등 도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후속 연계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동시에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민간주도 소규모 도시재생 실행주체 발굴·지원사업 사례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7월 3일 진행했던 사업설명회에는 30여

명의 참여자가 선착순 마감되어 원도심 도시재생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가늠케 했다.

『제1회 도시재생 스타트업 챌린지』로컬캠프는 칠성로상점가 일원에 창업을 희망하는 18명의 참여자들과 비즈니스 및 도시재생 전문가, 건물주 등 50여 명이 모여 각 공간과 사업을 연결하고 지역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하여 공유하는 장이 되었다.

센터는 '제1회 도시재생 스타트업 챌린지'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연계 우수사업자를 선정하고 칠성로상점가 내 입점 지원 내 상품화·사업화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 제주시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JEJU URBAN REGENERATION CENTER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부성현)는 6월 12일(금), 도시재생 상생모루 지하 1층 회의마당에서 '2020년 제주시 도시재생대학' 교육과정을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전체 12강(24시간) 교육과정 중 80%이상 수강한 17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하반기에 추진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대학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지역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성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준비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해 관련 분야 실무 전문가를 초빙하여 제주시 용담동 등 활성화 지역의 주민 24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에 걸쳐 운영했다.

주민주도의 자생적 재생기반 구축의 단초를 마련하고 도시재생 저변의 확대를 위한 도시재생

TOP DONG 101

도시재생대학 골목상권
팀원:김영숙, 임윤진, 황이카, 박현준, 오선영

잃어버린공원을

찾아서

도시재생대학 용담동동 프로젝트

심 팡 놀 팡

제주성안(원도심) 폐자재를 활용한 보행자 심터 만들기



특강과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팀을 이루어 직접 소규모 재생사업을 계획해보는 문제해결과정으로 진행됐으며 공동체팀, 골목상권팀, 생활인프라팀 3가지 프로젝트가 최종 발표되어 수강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부성현 센터장은 "센터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

산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운용에 적극 협조하며 참여해주신 교육생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도시재생사업 발굴과 지역 과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 및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형 도시재생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제주대 관광융복합학과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 협력'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부성현)는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관광융복합학과(학과장 임화순)와 6월 10일 도시재생 상생모루에서 '도시재생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및 홍보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을 위해 맞춤형 융복합 교육을 기획하고 학술 교류 및 공동 워크숍 등 다각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주체역량강화사업 및 관광융복합 교육 관련 협력 △도시재생 및 관광융복합 관련 인프라 공유 △도시재생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성현 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와 참여도를 높이는 홍보사업은 물론 도시재생 인력 양성을 체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주체역량강화를 위한 유의미한 협업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무근성7길 유해환경 지역상생 활성화 지원사업

무근성7길 일대를 중심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무근성7길은 제주목관아 주변 유일의 양방통행이 가능한 지역으로 주변에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지역주민들의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고, 동시에 유흥업소를 비롯하여 지역 상권 밀집 지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일정하지 못한 좁은 도로폭과 무단주

차, 형형색색의 유흥업소 간판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곳이다.

이에 무근성7길 일대의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한 간판 및 외관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유흥업소 사업주들과의 지속적인 공감과 협의를 통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의 역사와 기억을 간직한 간판 디자인을 적용하고, 외벽 도색 작업을 통하여 깨끗하

고 안전한 거리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유흥업소 업종전환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사업장은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유흥업소를 지역주민들이 즐겨찾는 공간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무근성7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걷고 싶은 골목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케왓’, 새로운 시작!

제주시 원도심 산지전 일대를 건다 보면 열은 초록 타 일벽에 목재 가구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눈에 띄는 공간이 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인 ‘케왓’이다. ‘케왓’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철거 예정이었던 옛 유성식품을 지역주민들의 삶의 기억과 흔적을 담는 공간으로 리노베이션하여 제주 음식 문화를 주제로 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케왓’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입아를 확보해 운영하는 ‘공동 경영지’를 의미하는 제주 방언으로, 방문객들이 음식을 통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레 지역기반의 음식 커뮤니티가 형성될 것을 기대하며 이름이 지어졌다.

케왓은 2019년 6월부터 운영자를 모집하여 다양한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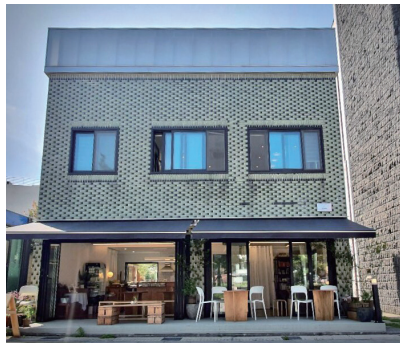
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전통시장과 연계한 시장탐방 쿠킹클래스와 제주 음식을 주제로한 인문학 강의 등이 있으며, 다양한 지역연계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2020년 6월, 케왓은 ‘모두의 주방’을 컨셉으로, 원도심 음식 커뮤니티로서 시즌 2를 열었다.

운영시간을 주말까지 확대하고,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케왓의 다양한 소식들을 모바일로도 편하게 만나볼 수 있다. 케왓 1층은 지역주민들이 잠시 들러 쉼을 청할 수 있는 오픈키친 및 라운지로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된다. 또한 1층에서는 음식 책방이 함께 운영되고 있어 음식 관련 책을 추천받고 이야기는 큐레이팅도 즐길 수 있다. 2층은 음식문화를 연구하고 콘텐츠

를 개발하는 공간으로, 음식 관련 쿠킹클래스 및 대관이 주를 이룰 예정이다.

현재는 전통시장과 연계한 시장탐방 클래스를 정규 상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음식 인문학 강의,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봉사대 활동 등 음식을 통해 지역을 이해하고 원도심을 알리는 역사, 문화적 알리미 역할을 하고 있다. 산지전을 가닐며 원도심에서 여유로운 하루를 선물하고 싶다면 케왓을 방문해보자.

주 소	제주시 관덕로 17길 27
운영시간	평일 · 주말 10:30 ~ 18:30 일요일 · 월요일 휴무
문의전화	070-7793-0685
홈페이지	http://kewhal1727.modoo.at



도시재생 상생마당의 새로운 네이밍 ‘상생모루’

‘상생모루’는 2019년 공모에서 채택된 네이밍이며, 제주의 하늘을 모티브로한 파란색, 제주의 자연을 모티브로 한 초록색, 상생모루에서 이어지는 형상은 제주 도시재생의 슬로건인 ‘이음.제주’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상생모루 건물의 사각모양 사이에 알알히 박힌 글자들은 ‘도시재생’과 ‘상생모루’의 자음을 형상화해서 디자인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도시재생,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 지도 이제 4년차가 됐다.

기존의 면단위 도시재생사업이 소규모 공동체 또는 주민조직이 참여하기에는 문턱이 높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고,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시작된 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터라, 이제는 현실에 맞춘 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020년 들어 작은 변화가 생겼다.

올해부터 국토교통부는 변화하는 여건에 맞게 ‘소규모 재생사업’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점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사업경험을 토대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행정·지원조직 등이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 조성과 거점공간 운영이 핵심이다. 최종적으로는 그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되고 연계되는 것이 목적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 활성화지역 밖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칙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지역 안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업의 확장성을 고려해서 활성화지역과 인접한 지역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 따른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

우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도시재생사업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는 인구, 산업(기업체), 물리(노후주택) 등의 쇠퇴도에서 2개 이상을 충족하거나, 또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지역으로 판단되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주민이 직접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사업제안을 하고 지자체의 검토를 거쳐 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의 심사에서 선정이 되면,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4억원까지 사업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제주시 읍면지역 중 구좌읍, 한경면, 서귀포시 동지역 중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서귀포시 읍면지역 중 성산읍, 남원읍 일부 지역이 대상지역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지자체가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의 심사를 거쳐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75억원까지 사업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주시 동지역 중 일도2동, 이도2동, 삼도1동, 용담2동, 연동, 서귀포시 동지역 중 예래동, 서귀포시 읍면지역 중 안덕면 일부지역이 대상지역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 가능지역은 ‘소규모 재생사업’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11월 내년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를 예정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볼 것을 추천한다.



